

진안노인요양원 운영 정상화

노사 파업 철회 후 업무복귀 시기·임금지급 문제 등 합의

지난 3일 요양보호사 노조 파업으로 파행을 겪던 진안노인요양원 운영이 지난 15일 합의가 이루어져 정상화될 전망이다.

진안노인요양원 노사가 파업 철회 후 업무복귀 시기 및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 등에 합의하여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운영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파업으로 인해 다른 시설로 이송된

노인들이 빨리 돌아올 경우 정상화 시기는 더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진안군 중재안을 노조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무복귀 시기 및 임금지급 등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진안군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씩 순차 복귀하고,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

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태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진안노인요양원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노·사의 행정기관, 보호자 대표가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시나요?

장수군, 인감증명 대체용 2012년 도입... 부정발급 해소

장수군은 16일 주민 편의와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

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인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다.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건과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방지와 행정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부귀편백순 산림욕장 숲 생태관리인 배치

진안군은 행락철을 맞아 부귀편백순 산림욕장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생태관리인 1명을 배치했다.

숲 생태관리인은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탐방객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백숲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부귀면 거석리에 국유림 8ha 규모로 조성된 편백순 산림욕장은 2017년도 7월 개장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엔 평상데크 52개소, 휴양·치유숲길 1.3km, 산책로 1.1km, 목교 2개소, 사방댐 2개소, 임도 1.4km, 화장실 2개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편백숲에서 해오름 마을간 산행이 가능해 등산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편안하게 편백숲을 만끽할 수 있도록 원형 벤치, 숲속의 작은도서관, 정자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숲 생태관리인을 통해 자연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치유와 힐링의 공간인 부귀편백순을 많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지급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난 15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하기 위해 447명의 학생에게 2019년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분야를 대학생 신입생 반값등록금 및 6개분야로 다양화해 최종 수혜자는 지난해 139명보다 늘어난 447명에게 2억 4300

여만원이 지급됐다.

장학금 지급 결과는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내 중·고교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장영수 이사장은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장수군의 청소년들이 더욱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장학제도 발굴 및 연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민원행정 설명회

13일 설천면 시작으로 10월까지 다양한 서비스 소개

무주군이 찾아가는 소통·공감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며 이장 및 주민 대상 주요 민원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 13일에는 설천면을 찾아 민원과 지적, 토지관리, 건축 분야에서 주민들이 꼭 알고 활용하면 좋을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출생기법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를 비롯한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설명, △출생기법 아가주민등록증 발급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토지이종 신청, △개별공시지가 산정, △건축허가 절차, △주거급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물론,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설천면 이남마을 장덕정 이장(75세)은 "반달 소식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시골에서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보

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직접 듣고 궁금한 건 물으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해서 유용한 서비스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설명회는 오는 23일 무풍면에서 개최되며 무주와 안성, 적상, 부남 등 다른 지역들도 각 읍면 이장회의 날짜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은 "민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알리고 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목적이 있다"라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눈높이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진안,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종료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운영해온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지난 15일자로 마무리했다.

군은 올 초부터 전국적인 건조주의보·특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2일부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하고 산불 대비 체제를 갖췄다.

봄철 산불대책기간 중에는 산불발생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주요 취약지역에 감시원 61명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감시 및 소각산불 단속을 벌였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을 활용하여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 등 산불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했다. 특히 302개 마을이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한 등 다각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힘써 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큰 산불 없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혹시 모를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산불기계화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6월 중순까지 연장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부부愛도 최고

2019 올해의 부부상, '2019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 수상

황인홍 무주군수가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 세계 부부의 날 국회기념식에서 '2019 올해의 부부상'과 '2019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부부 중 남다른 부부를 발굴해 시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 세계 부부의 날 국회기념식에서 '2019 올해의 부부상'과 '2019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서정숙 여사는 사랑과 헌신, 배려로 이어온 4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는 물론, 주변 이웃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군정에 접목하는 등 "행복한 무주 실현"에도 앞장서 '2019 올해의 부부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또 치매에 걸린 장모를 12년 간 집에서 모시며 간병을 하는 극진한 효심을 기반으로 '빈집 반액 임대 프로젝트' 추진과 결혼장려금(3년 간 5백만 원) 지급, 부부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2019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도 수상했다.

이외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조합장(21년 간) 시절이나 무주군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일과 가정에서 양립을 주도하며 직원복지 후생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주 2회 정기 퇴근)하는가 하면 장수부부를 위한 합동회화대회 개최와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의

발굴·추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출산관리용품 및 임신부 의료지원 사업추진,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행복 캠프와 다문화가정내 고향 나들이 사업, 가정행복 찾기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부부사랑이 가정행복과 지역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어떤 상보

다도 값지고 귀하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부모공경과 가족사랑 실천에 있어 모범을 보이며 무주다운 무주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부부특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국민메시지 낭독, 부부사랑 고백나눔,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9 올해의 부부상, 2019 올해의 부부문화 도시상'과 함께 '올해의 방송인 부부상(최수중·하희라 부부)'을 비롯한 '직능별 부부상'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